

광주 이주민건강센터 20년, 의료격차 해소 앞장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세미나·유공자 시상·비전 선포

진료소 1115회 운영 70여개국 6만2000여명 진료·투약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26일 오후 광산구청 운상원홀에서 사단법인 광주이주민건강센터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설립된 광주이주민건강센터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유학생 등 의료사각지대 이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및 건강 상담을 제공한 비영리 의료봉사단체다.

광주시에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기념행사는 이주민, 자원봉사자, 의료진, 후원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민 건강권 세미나 ▲유공자 시

상식 ▲비전 선포식 ▲사랑나눔 콘서트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역 이주민 건강권 증진에 기여한 의료인 4명(김일환·유경태·최희석·한현정)에게 광주광역시장 표창이 전수됐다. 또, 광주이주민건강센터는 '차별 없는 건강권, 포용적 공동체 실현'이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광주이주민건강센터는 지역사회 내 이주민 건강권 보장과 의료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총 1115회 진료소 운영해 70여개국 출신의 6만2000여 이주민에게 9만8000여건의 진료·투약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광주시 신규사업인 '의료 통·번역 활동가 양성 및 파견 지원 사업'을 통해 12개 언어권의 전문 의료통역사 29명을 양성, 총 124건의 의료통역을 지원함으로써 이주민들의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 제고에도 힘을 보탰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광주이주민건강센터의 지난 20년간의 활동은 광주가 인권과 연대의 도시로 나아가는 데 큰 이정표가 됐다"며 "앞으로도 이주민의 건강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승원 기자



여수서 지방 위기 극복 돌파구 찾는다

28일까지 지역혁신 분권자치 거버넌스 대회

전라남도도는 '지방의 위기와 지역의 미래'를 주제로 한 '2025 제6회 지역혁신 분권자치 거버넌스 대회'가 28일까지 이틀간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지역혁신 분권자치 거버넌스 대회는 전남도와 여수시가 공동 주최하고 2025 지역혁신분권자치거버넌스센터 조직위원회가 주관했다.

27일 개회식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여수·순천 지역구인 이광일, 강문성, 신민호 전남도의원, 거버넌스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 김순은 서울대 특임교수 등을 포함한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분권전국회의 등 연구기관, 학회, 시민사회 단체와 분권자치 지역운동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명창환 부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과 주민의 참여의식은 크게 성장했지만 중앙정부의 강한 통제와 제

정 의존, 지역 간 불균형으로 반쪽짜리 성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이 스스로 해결할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지방에 부여해야 한다"며 "프랑스와 독일처럼 상원제를 신설해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에 반영하고 국가 재정의 50% 이상을 지방에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식에선 또 '지역활력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광역의 활력과 호남권 메가시티, 지역을 살리기 위한 교육 개혁 및 거버넌스 혁명 등 전남의 주요 현안과 지방분권 과제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이와함께 우승희 영암군수와 최대호 안양시장이 발표하는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 수상 단체장 우수활동 발표회 등 지방정부 세션, 전국단위 학회 및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시민사회·연구기관 세션 등 이틀간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참여자의 폭넓은 토론 장이 펼쳐졌다. /염선호 기자

베이비부머 대상 '마을희망 은퇴 교실' 성료

동구, 4회 진행… '행복한 삶 위한 가치 찾기' 등 주제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운영한 '마을희망 은퇴 교실' 4회기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마을희망 은퇴교실'은 동구와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 광주센터의 업무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은퇴후 삶을 고민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생애 경력 설계 이해하기'와 '행복한

삶을 위한 가치 찾기' 등 두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구체적으로 ▲효과적인 재무관리 전략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건강관리법 ▲은퇴후에도 지속 가능한 사회참여 활동 모색 ▲개인의 가치관을 반영한 행복한 삶의 의미 찾기 등에 대한 수준 높은 강연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160여 명의 참여자들은 열정적인 참여로 은퇴 후 삶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통해 앞으로의 인생 2막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시간을 가



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마을희망 은퇴교실이 주민들의 행복한 노년 설계를 위한 밑거름이 됐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1면에서 이어짐

광산구와 첨단지구 상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도심형 물 축제 주제는 물총대전, 키즈폴, 얼음놀이대, 천원매주존, 플리마켓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메인무대에서는 DJ와 밴드 공연, 인기 뮤지션의 라이브 무대가 이어지며, 지역 상권과 연계한 부대행사도 함께 열린다.

동구 서석초등학교 앞 '아이 러브 스트리트'에서는 매주 주말마다 지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는 플리마켓 '별별마켓'이 열린다. 이 플리마켓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일요일은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운영된다. 먹거리와 핸드메이드 상품, 체험 부스, 현장 공연 등을 선보인다.

◇시원한 실내 '연극 전시 영화' 무더위 타파

광주 곳곳에서는 연극부터 전시, 영화 등 열대야를 피해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준비돼 있다.

상무지구에 위치한 '기분좋은극장'에서는 코미디 연극 '툼메이트'가 유쾌한 이야기로 관객들에게 웃음과 공감을 전한다. 연극 '툼메이트'는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원점에서 함께 살게 된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현실적인 청춘의 고민과 일상을 위트 있게 풀어낸 작품이다. 특히 이번 연극의 경우 기분좋은극장 최초로 맥주 반입이 가능해 더욱 시원하게 연극을 관람할 수 있다.

ACC에서는 전시회 야간 개장을 진행한다. ACC 복합2전시관에서는 오는 8월24일까지 '애호가자의 편지'가 열리는 가운데

매주 수요일·토요일에는 오후 8시까지 야간 관람할 수 있다.

'트로트와 도시 소리 풍경', '경계를 넘나드는 아시아 뽕짝'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트로트와 뽕짝의 리듬을 통해 도시의 틈새에 스며든 투박한 삶의 흔적을 되짚는다.

오는 7월18일부터는 ACC 복합6전시관에서 'ACC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뉴욕의 거장들: 잭슨 폴록과 마크 로스코의 친구들'이 개최된다.

뉴욕 유대인박물관이 소장한 약 2000여점 규모의 대표 컬렉션을 국내 최초로 소개한다. 잭슨 폴록, 마크 로스코 등 추상표현주의 거장 21인의 원화 작품을 통해 현대미술의 정수를 직접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전시도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오후 8시까지 야간 관람할 수 있다.

늦은 밤 한적한 드라이브와 함께 여유롭게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면 자동차극장인 '광주시네마파크'도 추천한다. 북구 패밀리랜드 카라반 캠핑장 내에 위치한 이곳은 1관과 2관의 대형 스크린에서 최신 개봉작을 매일 2회 상영하며, 차량 내 라디오 주파수로 음향을 송출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7월의 광주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야경 명소, 전시와 공연, 야외 축제 등 다채로운 야간 콘텐츠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며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도심 곳곳에서 문화와 휴식이 어우러진 특별한 여름밤 여행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도일 기자

서구, 마을·아파트 공동체 지원 나선다

전문지원단 위촉… 교육·멘토링·네트워크 형성 및 운영 지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기강)는 27일 창작농성골커뮤니티센터에서 '2025 마을·아파트 공동체 전문지원단' 위촉식을 갖고 마을·자치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현장 지원 체계 강화에 나선다.

이번 전문지원단은 세컨다(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마을자치(전문)학과 최고과정 수료자 등 마을공동체 활동 경험이 풍부한 활동가 6명으로 구성됐으며 ▲마을공동체 소양 교육 ▲공동체별 맞춤형 운영 코칭 ▲동별·권역별 네트워크 형성 및 운영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

앞서 서구는 전문지원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의 특강과 실습 중심의 연수 교육과 함께 마을공동체의

이해, 소통 기술, 컨설팅 역량 향상을 위한 실천 과정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한편 서구는 올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해 돌봄·교육, 나눔·돌봄, 기후환경, 문화·예술 등 4개 분야에 109개 단체를 선정해 3억5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기강 서구청장은 "서구는 전국 최초로 대학 수준의 체계적인 마을활동가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전문지원단이 마을 현장의 실질적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함께 마을 단위의 공론장이 활발히 작동하는 지속가능한 자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